

균형자: 한국정치와 동북아 장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The Balancer: Roh Moo-hyun's Vision of Korean Politics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by Emanuel Pastreich

한국대통령은 인터넷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타인의 인터뷰 또는 연설의 핵심내용에 영합하길 거부하는 면에서 미디어시대 정치인으로서 남다른 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주 많은 시간을 온라인작업에 할애, 자신의 전자정부 비전을 고취하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에 해당하는 대통령관저인 청와대의 웹사이트는 랩톱컴퓨터에 앉아 맹렬하게 자판을 두드리는 노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준다. 자신이 귀감으로 삼은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책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집필한 노 대통령은 링컨처럼 깊은 지적 복잡성이 내포된 연설문을 세밀하게 다듬는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을 남북으로 분단되고 내부분열에 휩싸인 국가의 지도자로 간주한다. 그는 발상과 이상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한다.

더욱이 비판이나 악의적 언론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의 성품은 놀랄만하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임기를 위협에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용의를 거듭 과시해 왔다. 상대적 무명인사로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 대통령은 그의 한국정부 개혁시도를 직간접 위협으로 느끼는 기독교세력으로부터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혔다. 그는 새로운 한국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감정을 해쳤다. 그의 사심 없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그는 때로 재계지도자들, 관료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전통에 훨씬 더 길들여진 국내정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데 실패했다.

권위주의 5공화국(1980-88)을 지배했던 협박과 부패의 문화는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비록 법치를 향해 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의 정경유착관계를 다분히 지속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사회 개방을 위해 거보를 내디뎠으나 한국인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익숙해졌던 방식을 상당히 답습한 채 청와대의 권위와 엄중성을 심분 활용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 대통령은 자신을 매우 접근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고 애썼다. 노 대통령은 정부 관리들이 개인적 이익보다는 한국의 가능성이라는 이상에 대한 헌신에서 동기를 찾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비전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생경하지만 그만큼 신선한 것이다.

보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노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했던) 일부의원들에 의한 2004 년 탄핵기도를 포함한 노 대통령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한국사회 분열의 산물이다. 한국정치는 오랫동안 남동부의 경상도와 남서부의 전라도를 세력기반으로 한 지역구도에 의해 지배돼 왔다. 그 같은 세력기반은 상존하지만 노 대통령 당선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이슈들이 주요요인으로 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국내외문제에 대한 현격하게 다른 발상을 지닌 2 개의 주요 세력집단이 부상했다.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미디어정보 소스에 의존한다. 한국 내 컨센서스의 심각한 분열상은 노 대통령 정부의 간단한 과제조차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외교정책의 근간을 한미동맹으로 보고, 사회문제를 등한히 여기면서 경제에 치중하며, 세계에 관한 정보를 보수신문 조선일보 같은 소스에 의존하는 보수파세력이 있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그를 가차 없이 비판해 왔다.

두 번째 그룹은 주로 통상 386 으로 알려진 젊은 유권자들로 구성된다. 386 의 3 은 나이가 30 대(다수는 이제 40 대에 접어들었지만)라는 뜻이고 8 은 그들이 80 년대에 대학에 들어가 전두환정부의 억압을 직접 체험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학생으로서 민주제도를 열망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애썼다. 이 세대 다수는 대학을 최루탄실험장으로 만들었던 학생시위에 가담했다. 마지막으로 6 은 그들이 60 년대에 출생, 한국의 고속산업화시대에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진보세력은 사회,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다. 386 세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로 가장 잘 대변된다. 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 비공식결사는 혁신적 수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다수 미국인들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믿게 했던 보수 언론이 배출한 압도적으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 그룹은 미국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세계에서의 한국역할을 창의적으로 구상한다. 때로는 지역 구도를 뛰어넘어 광범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대변하고 있는 그들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적 인터넷신문을 정보원(源)으로 발전시켰으며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위한 즉석 메시지 및 비디오 전달이라는 쌍방향문화를 채택하고 있다. 그들이 정보를 전파하는 비율은 한국사회를 변모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 정부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정치스펙트럼 양쪽에서 변화 혹은 발전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상당수 시민들이 있다. 월드컵(2002 년 6 월)과 노 대통령 당선(2002 년 12 월)을 중심으로 대두됐던 놀라운 낙관이 지나간 후 정치문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명인사에서 정상으로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

2 차 세계대전 후에 출생한 노 대통령은 어릴 적 한국전 기억밖에는 전쟁을 겪지 않은 최초의 한국대통령이다. 그는 또 고등교육으로 가는 표준코스를 밟지 않은 대통령으로서도 최초이다. 노동 및 사회 문제를 다루는 한국 내 가장 진보적 목소리들조차도 대체로 상당한 권위를 가진 기득권가정 출신이다.

노 대통령은 경상남도 봉화산 기슭에 파리를 튼 김해의 한 마을에서 가난한 농가에 태어났다. 1946 년이었다. 부모는 돈은 별로 없었으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무진애를 썼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뒷받침과 끊임없는 격려가 그를 앞으로 나가게 했다고 회고한다. 그는 자신이 고향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비관주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성취를 어머니가 따랐던 엄격한 도덕기준 덕으로 돌리는 면에서 전통적 유교학자를 방불케 한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그의 단호함은 후일 그에게 닥친 충돌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고 그는 적고 있다.

노무현은 1966 년 부산상고를 졸업한다. 부산상고는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몇 안 되는 학교의 하나였다. 군복무 3 년을 마친 후 그는 어린시절 연인 권양숙과 결혼한 후 취직을 한다. 그의 첫 직장인 어망제조회사에서 받은 봉급은 너무 적어 식비와 집세를 해결하는 데도 부족했다. 그는 어릴 적 꿈을 달성키로 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결심한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뿐인 그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정시험부터 합격해야 했다. 마침내 그는 4 번째 시도 끝에 1975 년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가득한 정치세계에서 그는 별난 사람이었다.

노무현은 사법연수원 2 년 과정을 이수한 후 1977 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꿈의 달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공공봉사와 성공이 의미하는 이상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정희 권위주의정부가 지배했던 1970 년대의 공직근무가 의미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 도전하게끔 강제했다. 그는 단 7 개월 근무 끝에 사임, 독자적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이듬해인 1979 년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되었다. 그 후 전두환이 대통령 직을 장악했다. 광주 민주화시위에 대한 전두환의 잔인한 탄압과 대학 및 언론계에서 정부비판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조직적 기도에 비하면 박정희는 온건파로 비칠 정도였다. 한 변호사가 정치적 유대관계 때문에 당국과 문제를 야기하자 노무현은 이에 개입, 논란대상의 사건을 맡았다. 정치적 배경이 없는 무명의 노무현은 사건을 신중하게 다룰 책임자였던 것 같다. 그 해가 1981 년이었다.

“부림 사건”으로 입건된 학생들을 위한 노 변호사의 변호는 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부림은 정부가 불법 좌익이론 스터디 그룹으로 낙인, 폐쇄한 학생독서클럽의 이름이었다. 고문을 당한 젊은 학생들을 만난 노무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고 그도 똑같은 운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종된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들과 만나 본 노무현은 한국의 혹독한 탄압실상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것은 그를 정치참여로 이끌었다.

인권문제는 그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열정과 설득력 있는 옹호,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억압적인 시기에 싹튼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지지는 그의 시야를 넓혔다. 그는 1984 년 부산에서 환경오염연구소 소장으로서 생태학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통령직선을 위한 전국적인 개헌투쟁을 의미하는 87 년 “6 월 항쟁”의 선두에 섰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 시위에 굴복, 대통령직선을 약속했을 때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가 시위사태 중 경찰이 투척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의 장례식과 연루돼 체포되자 그의 인생은 또 한번 바뀐다. 그는 문제된 노조와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변호했으나 그의 이석규 지지는 “제 3 자 개입”과 “장례식 교란”이란 혐의로 이어졌다. 그의 변호사자격은 정지되었다.

노무현은 1988 년 부산 동구에서 김영삼이 이끄는 야당 통일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력한 재정지원을 확보한 여당 후보를 이기고 국회에 진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권리의 거리낌 없는 옹호자로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5 공화국의 정치부패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 소속의원으로서 전두환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질문공세를 선도했다. 다른 의원들은 현대창업주 정주영 혹은 전 국가정보기관 수장 장세동에게 감히 맞대결하지 못했으나 노무현 의원은 능변에 거리낌이 없었다.

노무현은 1990 년 두 야당을 합병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를 주도했다. 노무현은 압제시대를 거쳐 한국을 이끈 세력들과의 화해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르려는 김영삼 전 야당 지도자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집권을 위해 그런 식의 근본적인 타협을 하지 않는 개혁당을 주장했다. 집권한 민자당이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통신관련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노무현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시민운동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원칙고수로 인해 1990 년대초에는 정치적 비주류에 포함되었지만 노무현은 그 덕분에 충실한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노무현은 1991년부터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까지의 기간 동안 야권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다. 그는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소 야당들 간의 타협을 주도했다. 이 기간동안 여러번 (1992년, 1995년, 1996년, 1999년, 2000년) 지역구와 전국구에 출마하여 실패했으며 새정치국민회의(NCNP) 대선후보를 위해 활약했다. 하지만 이런 실패들로 인해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정부의 투명성,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행정에 대한 참여구조 그리고 지역간 그리고 사회계층간의 불공평한 자원분포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 등 운동가와 진보적 유권자들을 움직인 기본적인 문제와 타협하지 않을 유일한 정치인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은 집권층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다. 그는 일본 식민시대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 동안 행해져 베일에 싸여 있던 일들의 벽을 허물기 원했던 사람들과 마음이 통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줄 네트워크를 두 단계로 구성했는데 첫 번째는 1980년대 정계에 입문하지 않았을 때의 그의 활동이며 그 다음은 1990년대에 실행가능한 대안으로서의 다양한 야당통합 노력이다. 이 두 다른 그룹은 그를 국민적인 인물로 만든 법적, 학문적 연관성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야당을 결성한 저명 종교지도자와 변호사들은 선거때마다 그를 계속 지지했다. 노무현이 1984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 환경보호운동 역시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다. 재활용, 에너지보존 및 대중운송에 대한 노무현의 신념은 이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시인이나 소설가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하다. 강은교 시인의 남편 임정남과 소설가 김정한 같은 지식인들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지지자들이었다. 이 3-8-6 세대의 억눌린 열정과 좌절감이 결국 노무현을 전국무대로 진출케 하는 힘이 되었다.

노무현은 양심수와 인권옹호주의자 출신인 김대중의 1997년 대선캠페인을 위해 큰 활약을 했다. 김대중의 승리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제도가 IMF 위기 동안 공익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진보세력을 규합하고 그들의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었던 노무현의 능력이 대선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

김대중은 한국을 발전된 민주주의로 재건하려는 정열을 가진 야당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는데 노무현도 그런 인물 중 한사람이었다. 노무현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일하게 된 이 첫 번째 기회 덕분에 그는 행정부를 구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민주화운동 동안 개발된 비계급주의적 통치와 수평적 상호작용 접근법을 도입했다. 비록 그는 수십년동안 정부에 대항해 싸웠지만 그는 선한 유학자처럼 정부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서 각 층의 어민, 기업인, 평범한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만났다. 그는 또한 “기술을 토대로 한 경영”과 관련된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규모로 실천했다.

노무현의 2003년 대선 승리

노무현이 2002년 12월 19일 명백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정말 기적 같았다. 그의 지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던 현대 창업주의 아들 정몽준은 막판에 그를 떠났다. 전례에 없는 예상 밖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IMF 사태가 초래한 모욕감과 불안정이 계기가 된 금융개혁을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김대중이 다수의 경제개혁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특히 김대중 정부와 연관된 여러 스캔들로 개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 후 많은 한국 사람들은 더욱 포괄적인 개혁을 갈망했다. 김대중은 통일 미래를 기대하는 한국에 희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부패한 후원제도와 1940년대, 어떤 면에서는 1920년대 이후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의 정치적 지지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기구의 대부분을 존속시켰다. 자수성가한 노무현은 심지어 집권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반체제적 이미지를 보였다.

노무현은 선거캠페인 초반부터 자격이 없다는 공격을 받았다. 1988년부터 정계에서 활동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의 그의 유일한 직접적인 경험은 그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역임한 7개월이었다. 예비선거 당시 노무현의 경쟁자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훈련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의 대선 경쟁자 이회창은 총리가 되기 전 많은 고위직을 지낸 권력체제의 일원이었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관으로서의 업적에 대한 에세이에서 이런 비판들에 반박했다. 그는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보통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안을 도입하면서 예상가능한 정례 모임에서 시간이나 죽이면서 권위에 집착하는 관료들을 질책했다.

노무현이 외교, 국방 또는 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일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결단력과 비전을 제시했다. 노무현의 경쟁자인 이회창은 분명 인기가 많았지만 금융 스캔들과 악의적인 수단을 통해 그의 아들이 군복무를 피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경쟁은 예상외로 접전으로 변했다. 노무현은

자신을 기성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얼굴인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및 인권 운동 시절부터 열렬한 그의 지지자들이 벌인 선거운동은 이회창 지지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젊은이들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이회창 팀의 행동에 대한 빠른 반응들을 제공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하기 원하는 노무현의 바람은 특히 미군용 장갑차가 실수로 여학생 두명을 치어 사망케 한 후 미군 두명에 대해 미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든 때에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일본과 독일에서와는 달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한국 법정의 사법권을 부인하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이 숙적이자 과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일본에 대해 선진국에 걸맞는 성숙한 태도로 손을 내밀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한 것은 새로운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월드컵 성공 후 미군이 관련된 사건의 법적 처리는 한국인들이 책임있는 민주주의와 경제강국으로의 부상에 적절한 특권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미간에 군사 및 외교관계의 불평등이 계속 존재하는 점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은 보다 자주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한국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비록 선거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대립으로 널리 인식되었지만 중요한 이데올로기보다는 정책의 차이가 결과를 판가름했다. 노무현의 정의감은 공명정대라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좌파 인물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좌파적 독트린을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캠페인 동안 이데올로기적 색깔이 없는 제도적 변화를 주장했으며 따라서 그를 한가지 색깔로 묘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피할 수 있었다. 특권층 가문 출신인 이회창과 링컨을 본받은 자수성가한 노무현 간의 출신계층의 차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했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 한국의 정치문화 바다 향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권위와 결단력 그리고 겸손함을 결합하는 이미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젊은 사람 특유의 생기와 장난기는 여전히 반짝인다. 동시에 그는 청와대 회의석상에서 특히 여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표하여 그는 역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여성들을 옹호해왔다.

인터넷 덕분에 노무현은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의 모든 관리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그는 매일 저녁 몇시간씩 한국 역사상 전례에 없는 정도로 정부 관계자들과 논쟁을 벌인다. 노무현은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며 자신을 일반인 옹호자임을 강조한다. 개인들과의 비공식적 협의를 금지키로 한 그의 결정은 그것이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영향력과 후원 패권에 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렴함을 보여준다. 노무현은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리들이 대통령과 직접 상의하도록 격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렴결백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된 그의 정책들은 용인된 관행과 명령계통을 침해했다.

노무현은 정부 능률화 및 민주화의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개설했다. 그는 인터넷을 모든 시민, 즉 네티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가동시켰다. 사람들은 한국 전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다.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약 3,100 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국은 정부와 사회내에서의 힘의 계급제도에 도전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낙관론과 의견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정치인의 修辭에 익숙한 사람들이 노무현의 연설을 듣는다면 분명 경악할 것이다. 우선 노무현은 절제된 외모를 유지하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처신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며 그는 구체적인 이슈와 개념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연설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정치인들은 일반 청중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여 간단한 문장들을 나열하여 연설을 하는 반면 노무현은 청중에 관계없이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한다. 그는 보통 청중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개념이나 모순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와 같은 접근법은 노무현이 독학을 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한다. 노 대통령의 글은 문학적이어서 읽기가 재미있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거론할 때도 영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노 대통령의 연설은 충분히 타협을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당선시켜준 이해관계들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간주했던 링컨의 연설을 상기시킨다. 노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이익집단들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인식을 가짐으로서 반대자들에 대해 어떤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은 원칙이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유교적 이상에 충실하다. 그는 이른바 “아름다운 원칙”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고 심오한 다스림의 미학을 갖고 있다. 한국의 힘이 전성기에 있던 15세기 제도적 개혁과 기술혁신을 모두 아울러 세종대왕처럼 노 대통령도 국정자문을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난다.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과는 달리 노 대통령은 특별한 이익집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교적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 그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이 분명히 훨씬 개방적이고 성숙한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노 대통령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피나감에 있어 온건주의자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결정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들 다수의 뜻을 거스르며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가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훌륭한 다스림의 원칙에 충실하지만 이념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는다. 출신 배경 때문에 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시절 운동권 학생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투쟁이나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르크시즘이나 계급이론에 빠져들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헌법에서 민법에 이르기까지 내가 공부했던 모든 법제도가 모두 상대주의적 철학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회주의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교육받은 한국인들 중에는 노 대통령이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처음부터 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고위 관리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공부한 이들이 많지만 노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는 미국에 가 본 적이 없었다. 비범한 확신과 의지를 통해 노 대통령은 이런 불리함을 극복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반동적인 사회세력의 복무자들로 보는 유권자층에게 어필한다. 노 대통령은 법치가 근간이 되며 실력에 따라 대접받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국민의 승리”라는 개념과 경제호황을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기술적 통합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시각은 한국이 지도적 국가가 되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노 대통령 집권 하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과 국가, 하급 공무원들과 정부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 내 소외와 불평등을 줄이고 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은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국민들이 노 대통령 정부에 느끼는 실망이란 어느 정도는 그의 야심찬 목표 때문이다. 빈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농촌에

투자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제안들 가운데 많은 수가 지금까지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쳐왔다.

노 대통령은 서민대중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요구 사이에서, 또 수도 서울에 부와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과 노 대통령이 성장했던 곳과 같은 농어촌 지역을 개발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노 대통령의 “권력분산” 의지는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수의 정부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권력 전반을 수도로부터 이동시키려고 애쓰는 등 정부의 분권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의 행정, 경제, 지적 자산 및 문화의 400 년 역사와 충돌을 일으켰다.

“균형적 발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전은 정부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차별철폐 등에서 한층 확장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균형이라는 개념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뉴딜정책의 약속과 비슷하다. 노 대통령은 왜곡과 불공정의 유산을 바로잡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증진시키며 직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의 고양 및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운동 중 인상적인 TV 홍보는 정인지체자들을 방문하는 권양숙 여사의 모습이었다. 권 여사는 지저분한 건물로 들어가 파자마 바람의 거주자들과 악수를 나눈다. 약자들을 위한 노 대통령의 의지를 주목하게 만든 이 광고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TV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사용이 노 대통령 재임 중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에 장애인들이 정기적으로 등장하고 언론에서 노사문제가 집중조명된 것은 한국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했던 일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 사할린 섬 유전 사업에 대한 한국철도의 투자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 측근 중 일부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들의 금권 정치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4 년 2 월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은 노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많은 농민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실망시켰다. 일본·미국과의 FTA 협정에 관한 유사한 논의도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대와 충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려는 노 대통령의 비전은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농민, 소규모 자영업자, 운동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인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균형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국민 개개인의 수호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압도했다. 클린턴이나 고이즈미처럼 노 대통령도 점점 더 국제시장의 영향력에 끌려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구체적으로는 관료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는 친일과 문세 및 박정희·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민감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그가 보였던 적극적인 태도의 결과다. 예를 들면 1948년 4월 3일 한국군은 제주도의 공산주의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0,000명 이상의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수십 년 동안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없었다.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수반으로서 본인은 과거 정권의 비행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현직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공식적인 발표였다. 이는 노 대통령의 진실규명 노력의 시작에 불과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논란이 많고 매우 고통스러운 식민통치시대로 확대되었다. 식민지배를 겪은 사회라면 모두 그렇듯 지배자들에 대한 부역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특히 엘리트층에서 그렇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친일 진상조사 의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이 임명한 법조계·학계인사들로 이루어진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여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의 해묵은 한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이런 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실규명은 식민통치 기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977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암살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의 발표 및 정부와 재계의 비리에 대한 중단없는 조사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징후이며 동시에 노 대통령이 왜 사회 각계의 엘리트 집단에서 적대감을 얻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 및 경제원조 제공 등을 포함한 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움직임, 사회복지 확대 계획, 북한 문제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일련의 문제에 있어 부시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등 모든 면에서 반대자들의 공격을 촉발시켰다.

노 대통령 지지세력과 기득권 세력 사이의 적대감은 2004년 야당 및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정치적·경제적 기득권 세력은 노 대통령이 TV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그의

비정통적 제안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낙인찍혔다. 아울러 측근들이 관련된 비리와 정책적 무능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거리에서 그를 지지하는 촛불시위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무능과 실정(失政)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탄핵을 기각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극단적인 헌법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분노한 많은 한국인들이 앞다투어 투표하자 탄핵은 역효과를 냈다. 과거에는 미미했던 열린우리당이 4월 15일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장악했다. 이 선거에서 세대간의 갈등은 이전 선거에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에는 구시대의 망령들이 배회하지 않는 새롭고 열린 한국사회를 꿈꾸는 20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노 대통령의 정책들이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세력에 대한 계급투쟁과 다름없다고 보는 한국전쟁 생존자 세대가 있었다.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은 역동적인 한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전

노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적 축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이러한 한국의 역할은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제도적 통합과 비슷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금융적, 기술적으로 중국과 점점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 —2003년 한국의 對中 무역은 對美 무역량을 넘어섰고 마찬가지로 교육적·문화적 유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에 대한 인식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좋은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려는 열망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했다.

한국의 시민단체, 대학, 정부기관들은 동북아의 협력을 거듭 주도적으로 논의해나갔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경계하던 자신의 모습에서 탈피했다. 부분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벌이는 사업이 아시아 통합이라는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미래 한국의 역할을 가장 뚜렷하게 밝혔던 것은 “한국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2005년 3월 22일 연설에서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새로운 비전의 긍정적 차원은 즉각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반응에 묻혀버렸다.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한 과연

한국이 지역 지도자로서 경쟁적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겨났다. 동아시아의 균형자 한국이라는 비전을 마지막으로 제창했던 인물은 15 세기의 신숙주였다. 신숙주 이후 몇 백 년 동안 한국은 비극적인 시기에 강대국들, 특히 중국, 일본, 미국이 부과하는 정책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균형자”로서의 한국이라는 대체적인 비전과 국제문제에서 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한국에 대한 열망은 정당 간의 노선을 넘어서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경제적 통합이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가교(架橋)적 역할의 유효성은 많은 이들도 인식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흔히 아시아의 “은둔국”으로 일컬어지던 한국의 지위는 결정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일본어, 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베트남어, 영어 등의 동시통역과 즉각 무료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선진국들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글로벌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주의 시대에서 이런 노력은 한국의 對中 및 對日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역사 및 영토의 복잡성에 대한 강렬한 감성적 대응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최근 고구려(37 BC-668 A.D.)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다. 고구려는 만주 외에도 북한 전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강력한 항의를 유발했다. 일본이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도 유사한 항의가 폭발했다. 독도는 2 차 대전 말 이후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분쟁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공유된 역사에 관한 한.중.일 국민들의 각종 회의개최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3 국간 금융 교류도 지속되었다.

노 대통령의 대북관계 개선 추진

동북아에서 한국의 미래 역할에 관한 노 대통령 비전의 핵심은 북한이다. 북한과의 통합 및 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야기된 위기의 해결은 아시아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건설적인 한국의 역할을 위한 초석이며 아울러 동북아를 갈라놓는 폭발적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늘고 노 대통령이 가끔 북한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는다. 노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노력을 지원했다. 대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톱 패션모델을 참여시킨 가운데 개성에서 개최한 패션쇼는 남북관계 변화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한국 최대의 통신회사 KT 는 지난 5 월 개성공단과 북한을 잇는 전화선을 개통했으며 여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계획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워싱턴 우파로부터 악의에 찬 공격을 거듭 받았다. 노 정부에 가해진 이런 노력의 태반은 한국의 비전을 촉진하는 데보다는 진화 쪽에 기울여졌다. 노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미 언론의 분석은 도전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케넬리가 “한국과 합의 이혼 할 때”란 제목으로 미 기업연구소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서울의 현 정부는 짧은 한국역사에서 가장 반미적이다. 이 정부는 미군에 반대하는 국민감정을 부채질하는 좌경정부다. 노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는 믿지 못할 동맹으로 묘사되었다. 여론과 맞서 단행한 한국의 이라크전 공약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노 정부는 북한과 어업권, 통신 자유화, 도로와 철도의 개방문제를 협의했다. 동시에 남북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도 조직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재회한 이산가족은 수천 명에 이르렀고 북한의 이미지와 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한국 TV 에 자주 방영되었다. 몇 년 전까지도 이는 금지되었다.

6 자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노 정부는 북한을 압박한 위협으로 간주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옵션”을 암시하지도 않았다. 노 대통령의 기본 개념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 문제로서 쌍방이 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을 화해할 수 없는 적이라거나 전면 붕괴 직전에 있는 나라로 암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통합된 유럽처럼 하나로 통합된 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진전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답습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접근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의심의 눈초리, 심지어 적대적인 시각까지 불러왔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포용했다.

노 대통령, 일본과 분쟁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도 대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집권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동북아 중심에서 일본을 포용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수교 40 주년을 기념해 양국은 2005 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했다. 두 나라 문화는 전에 없이 교류되고 한국의 드라마, 팝 가수들은 일본에서 뜨거운 화영을 받았다. 일본의 향수, 만화, 비디오 게임, 소설들은 한국에서 많은 팬을 만났다. 상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협상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인기 월간지 신동아는 2 월 호에 한국문화에 대한 일본의 깊은 관심과 일본 내 한국 문화 붐에 관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그러다 깜작 놀랄 일이 생겼다. 우정의 해가 겨우 두 달째 접어든 2 월 23 일 주한일본대사 도시유키 다카노는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영토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적절치 못한 시기에 이 발언이 나오고 이어 일본 함정이 파견되고 헬기까지 독도부근에 출현하자 한국은 이를 한국에 대한 오랜 군사팽창 역사를 가진 나라의 도발로 간주했다. 2 차 대전 중 일본의 범죄기록을 삭제한 역사교과서 발간과 겹쳐 일련의 일본의 행동은 한국에서 노골적인 침략으로 받아들여졌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 웹 사이트에 썼듯이 “이런 행동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합법화하고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국의 반발은 격렬했다. 어떤 시민은 단지를 하는가 하면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서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3 월 23 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썼다. 그는 “외교전쟁”을 선언하고 일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국민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하기를 거부하고 경제, 사회적 관계 단절도 거부했다. 그는 나아가 독일방문을 통해 일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유럽통합을 찬양했다. 그는 또 독일의 안보리 진출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결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노 대통령의 페이스는 적극적이고 불안하다. 노 대통령에 반대하고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다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나라로 복귀해야 한다는 희망에서 그런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모두 노 대통령 혼자 만든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도 때로는

영국작가 조프리 초서가 ‘기사의 이야기’에서 한 것처럼 “필요의 미덕을 창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세계화는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갈라놓은 숨은 손이었다. 노 대통령은 개혁에 애타주의를 불어 넣으려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심야에 컴퓨터로 쓰는 사려 깊은 말과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궁극적인 의미를 둘러싼 쟁점은 노 대통령의 손을 떠난 것이다. 예를 들어 “balancer”는 한국어 균형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balancer”는 노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 학계에서 파악하는 “balancer”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려는 약소국가의 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러시아 사이의 협력은 “balancing”이 목적이다. 노 대통령은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유교적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균형자 역할은 일종의 옴부즈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은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사방으로부터 계속해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핵심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에 군대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골수 보수의 비판을 받으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특정 이해나 특정 이념을 가진 신문이 신문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비판이 그의 정치적 장래를 위협하는 순간에 그는 그런 말을 했다. 그의 균형자 개념은 한국의 중심무대를 장악하려는 반대세력과의 끝없는 투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형자의 역할은 결국 투사의 몫이다.